

회약하는 동중국 현장을 가다

<4> 중국은 싸구려가 아니다

“對中투자 선입견 버려야 성공”

‘싸구려’ ‘짜퉁’ 중국하면 먼저 연상되는 단어들이다. 중국산이라면 값싼 물건이라는 생각이 우선이다. 한 술 더 떠 모두 가짜가 아닐까하는 의구심도 갖는다.

그러나 중국산이라고 해서 모두가 싸구려고 가짜는 아니다. 중국 상품은 아주 비싼 것부터 거저 주어도 갖기 싫은 것까지 다양하다.

와 양념 등이 최고급품이었고 위생관리 또한 완벽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게 현지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면 한국 수출에 치중하는 일부 김치공장들은 규모가 영세하고 위생관리도 철저하지 못해 가격을 낮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물품들이 존재한다. ‘황제와 거지가 같이 사는 나라.’ 중국의 다양성을 함축하는 말이다.

‘돌다리도 두드려라’

‘아는만큼 모른다고 생각하면 대충 틀리지 않는다’ 중국에서 오래 생활한 이른바 ‘고수’들이 경험을 곁들여 하는 표현이다. 13억여 명(실제 15억 명으로 추산)의 인구. 남한의 98배에 이르는 광대한 면적. 전체의 92%를 차지하는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이다. 지니고 있는 다양하기 이를 데 없는 문화적 특성. 그래서 중국은 항상 고정관념을 거부한다.

중국에서 어제의 경험은 오늘의 결정에 참고는 되겠지만 절대조건은 아니다. 그만큼 중국사회 변화 속도가 빠르고 사람과의 관계가 다양해 항상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성공 확률이 높다.

특히 중국관련 비즈니스에서는 법적효력을 발휘하는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말로 맺은 약속은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다. 아무리 굳은 약속과 포용으로 제휴를 다졌더라도 조금이라도 이해가 빗나가면 모르는 얼굴이 되기 쉽다. 조금 안다고 선불리 나서지 말라. 그리고 꼼꼼히 챙겨라. <끝>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중국산=‘싸구려’ ‘짜퉁’은 편견

그렇다면 왜 한국사람들은 중국산에 대해 싸구려나 가짜가 많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지니고 있을까. 실제로 중국에서는 싸구려나 모방제품이 판을 치기도 한다. 중국 현지에서 여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조창완(38)씨는 “일부 한국 무역상들이 높은 마진을 노리고 값싼 제품 위주로 중국산 물건을 한국으로 들여가는 바람에 이같은 인식이 생겼다는 분석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말한다.

중국산 김치파동에도 이같은 분석의 적용이 가능하다.

당시 중국 현지 김치공장의 일본 수출품은 한국으로 내다파는 같은 양의 제품보다 두 배 높은 가격을 받았다. 당연히 일본으로 조달하는 김치는 배추

‘황제에서 거지까지’ 각양각색

따라서 중국산은 모두가 싸구려고 가짜라는 인식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북경이나 상해의 대형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는 ‘진짜’ 소주(蘇州)산 실크원사로 만든 양복은 한 벌에 수 백만원의 호가한다. 어지간한 샐러리의 월급을 상회하는 실크양복을 사입하려면 부호소리를 들어야 가능하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도 예외없이 중국 현지공장장에서 ‘OEM’(주문자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물건을 만들어 낸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와 외국기업 유치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노려 중국에서 생산하지만 세계적인 브랜드가치는 그대로 통용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는 최고부터 최저까지 매우 다양한



중국 최대를 자랑하는 질감성 이우 도매시장. 2만여개의 점포마다 세계 각국으로 팔려나가는 각종 각색의 물건이 빼곡하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30년

무역진흥을 위해 30년을 심 없이 달렸습니다

수출강국을 향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혁신과 열정으로 대한민국의 수출 값을 더욱 높여드립니다.
도덕성 근대성을 두배는 우리 수출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수출로 부자 되는 나라, 수출기업만이 영광 시킵니다.



특별기고

이석형



선배 군수의 아름다운 은퇴에 부처-

민선 4기를 이끌어 갈 5·31 지방선거가 끝난 지도 벌써 한 달이 다됐다. 당선자는 기쁨과 함께 행복하고 비쁜 날을 보낸 반면, 낙선자에게는 참으로 가슴 아프고 고통스런 기간이 되었을 것이다. 나 역시 무소속으로 출마해 호남지역 유일의 3선 군수에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후임자 빛내주는 조언자

이런 와중에서 당선자 낙선자 모두가 눈여겨 볼 아름다운 은퇴자가 있어 소개해 보고자 한다. 곡성군수 선거에서 개표 과정 내내 지켜보는 사람의 가슴을 울리게 하며 잊혀져 버릴까봐 전남지역 최소 표차인 78표차로 낙선의 고배를 마신 고현석 군수 이야기다.

사리 갖기 힘든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저 존경스러울 뿐이다. 고 군수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면서 마음이 넓은 분이다. 전형적인 위유내강형의 대인 스타일이다. 같은 자치단체장으로 바쁜 와중에도 잘한 일이 있으면 사소한 경우라도 전화를 걸어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다정다감한 분이다. 장관 부인의 외조자로도 소홀하지 않았다.

농협에 오래 근무한 경력으로 농촌형 자치단체가 지향할 타당한 이론가로, 전문가로 손색이 없었다. 8년간 재임하는 기간에 아무런 사심없이 오로지 일에만 몰두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융통성보다는 성과와 계획으로만 승부하고 일정한 선을 넘는 타협을 거부하는 등 원칙과 소신을 지키려고 애썼다는 후문이다. ‘심정고을’ 곡성과 ‘나비고을’ 함평은 여러 면에서

당신의 뒷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개표 결과 주위에서 100표 이내라 재검표를 요구할 이 마땅하다는 제안과 의견을 제기했으나 과감히 뿌리쳤다. 오히려 패배를 인정하고 후임자에게 큰 힘이 되어 주는 지원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조형래 당선자와 동행하여 기획예산처 차관을 면담하고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곡성군 출신 향우모임과 재경 곡성군 향우회에 참석하여 협조를 당부했다고 한다.

또 군수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준 모든 분들이 평범한 군민으로 돌아가 새로 뽑힌 일꾼들이 군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는 등 아름다운 행보로 귀감이 되고 있다. 표차가 적어 진한 아쉬움이 남았을 법도 한데 이처럼 용기있는 결단을 하다니 본받을만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고 군수는 곡성군 홈페이지 ‘군수의 생각’에서 ‘군정 공약에 관한 제안과 당부의 글’을 통해 “후임자가 잘못 해서 반사적으로 돋보이는 전임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 보다는 후임자가 빛나도록 도와 준 전임자라는 명예를 갖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보통사람으로선 쉽

않은 꼴이다. 군세와 인구, 재정자립도 등이 비슷하고 내세워 자랑할만한 관광자원이 없는 고장,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보존한 고장, 친환경을 군정의 목표로 삼고 추진한 점 등 어찌보면 동병상련의 입장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 싶다.

영원한 현직... 지도편달 주시길

퇴임을 앞둔 고현석 군수님은 민선 2, 3기 군수를 역임하면서 오로지 곡성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쏟았다. 심정축제, 기차마을 조성, 친환경 과학농업, 평생학습도시 등 많은 일을 하셨다. 민선 2, 3기 함평군정을 이끌어 오면서 닦고 싶은 선배 중의 한 분이다. 이제 임기 중에 시행한 시책들이 정확히 재평가 받고 후임자에게 계승 발전되어 곡성의 힘찬 도약에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현직을 떠나시더라도 고향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 현직 단체장과 입후보 예정자 모두 한번쯤 가슴에 깊이 새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함평군수>

반명환의장 보수반납 약속지켜



광주시의회 반명환 의장(사진)이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소급 적용 받은 보수 전액을 반납하겠다고 약속을 실천에 옮겼다.

반 의장은 29일 지난 1월부터 소급적용 받은 보수 690만 원 전액을 광주시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반 의장은 지난 3월 “시민의 정서와 열악한 지방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지방의원 유급화는 7월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의원부터 적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급분을 전액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광주시 측에서는 이달 초 광주시의원에 소급분을 모두 지급했으나 반 의장은 이날 “시민과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소급분을 반납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역 정가에선 “사소한 약속 같지만 정치인이 이를 지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